

베테랑 구자철 “브라질 악몽 떨쳐내겠다”

8년전 엔트리 탈락·4년전 16강 실패 “긴장·설렘”...두번째 월드컵 투혼 다짐

2010년 6월 1일 오전 7시 25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둔 태극전사들이 사전훈련캠프를 차린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 야크트호프 호텔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최종엔트리(23명)에 탈락한 선수 4명을 태우고 독일 뮌헨 국제공항으로 떠날 차량이였다.

10여분이 흐르고, 로비로 나온 이들은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여기에 구자철(29·아우쿠스부르크)도 있었다. 전날 밤 허정무 감독으로부터 탈락 통보를 받고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도 가슴은 찢어졌다.

그 순간은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됐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버티며 뛰었다. 2011카타르아시아컵에서 득점왕(5골)에 올랐고 2012런던올림픽 동메달의 영광을 일궜다. 2014브라질월드컵에서도 골 맛(알제리전)을 봤다.

다시 시간이 흘렀다. 신태용(48)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도 오스트리아에 왔다. 장소는 레오강으로 바뀌었다. 구자철은 최종엔트리에 승선했다. 그런데 마음은 편치 않다. 트레이드마크인 밝은 미소가 사라졌다. 그저 진지함만 남았다.

무릎 부상을 입은 지난 시즌 막판, 구단 협조로 조기 귀국해 치료와 재활로 몸을 만든 그는 아직 부족함을 느낀다. 1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가전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했으나 아쉬움이 짙었다.

활동폭도 좁고, 움직임도 둔탁했다.

그러나 구자철의 가치는 충분하다. 새도 스트라이커~측면 공격수~수비형 미드필더 등 다재다능하다. 정상 컨디션만 찾으면 대표팀의 가용 카드는 한층 풍성해진다.

여기에 베테랑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청용(30·크리스털 팰리스), 이근호(33·강원FC)등 월드컵을 경험한 고참들이 이탈한 상태에서 구자철은 ‘킥틴’ 기성용(29·스완지시티)과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레오강 슈타인베르크 슈타디온에서 체력 훈련이 진행됐을 때 그는 턱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고 “서로 끌어주자, 전부 함께 한다”고 모두를 독려했다. 나오자까지 챙기려는 자세는 좋은 리더의 덕목이다.

솔직히 어깨가 무겁다. 월드컵의 중압감에 책임감도 크다. 잔뜩 들뜬 후배들을 향해 따끔한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다. 스스로 각오도 다르다. A매치 66경기(19골), 주요 메이저대회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던 구자철은 “긴장과 설렘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브라질월드컵에서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싶다”고 말했다. 8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느낀 참담함, 괴로웠던 4년 전 브라질의 악몽을 딛고 일어서려는 구자철의 생애 두 번째 월드컵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레오강(오스트리아) | yoshike3@donga.com

8년 전 아픔을 겪은 그곳에서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2010 남아공월드컵을 앞둔 오스트리아 캠프에서 최종엔트리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구자철이 2018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칼날을 가다듬고 있다. 6일(한국시간) 레오강 캠프에서 이용과 몸싸움을 펼치는 구자철(앞 왼쪽). 레오강(오스트리아) | 뉴스스



멕시코 대표팀 ‘성추문’ 논란 스코틀랜드전 후 매춘부 불러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한국과 함께 F조에 속한 멕시코가 때 아닌 성(性) 추문에 휩싸였다. 멕시코 대중지 TV노타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6일(한국시간) “멕시코대표팀 선수 8명이 3일 스코틀랜드와의 홈 평가전을 마치고 멕시코시티 로마스 데 차폴테펙에 위치한 한 저택에서 매춘부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주전 골키퍼인 기예르모 오초아를 비롯해 지오반니 도스 산토스, 엑토르 에레라, 라울 히메네스 등 주전급 8명이 30여명의 매춘부들과 하룻밤을 보냈다. TV노타스는 현장사진과 함께 “이들은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이날 평가전에서 1-0으로 승리한 직후인 오후 10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파티를 열었다”고 전했다. 중요한 무대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매춘 파티에 참석한 8명이 모두 기혼으로 알려져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축구계가 성 추문에 연루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9월에는 대표팀 선수 11명이 멕시코 몬테레이에 위치한 호텔에서 매춘 파티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고, 2011년 6월에는 에콰도르 원정을 떠난 22세 이하 대표팀 선수 8명이 매춘 스캔들에 연루돼 자격 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멕시코 축구협회는 별다른 징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예르모 칸두 협회 사무총장은 6일 “협회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에게 벌금과 같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한국 첫 상대 스웨덴, 부상 속앓이는 동병상련

여기는 스웨덴

헬란드르 어지럼증·구이테티 부상 훈련멤버, 러시아월드컵 출전 미정

스웨덴 대표팀은 5일(한국시간) 훈련을 미디어에 일부 공개한 뒤 감독 기자회견, 선수 5명 믹스트론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덴마크와의 평가전 이후 휴식을 취했던 스웨덴은 본격적으로 2018러시아월드컵 준비에 돌입했다.

스웨덴 안 안데르손 감독의 기자회견은 팀 숙소인 스톡홀름 스칸디 호텔에서 열렸다. 안데르손 감독은 “수비수 필리프 헬란드르(볼로냐FC)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당분간 훈련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데르손 감독은 최종엔트리(23명)에 포함되지 않은 에밀 베리스트롬(루빈카잔)을 훈련에 포함시켰다. 예비엔트리(35명)인에 포함됐던 베리스트롬은 10일 페루와의 평가전까지 팀과 함께 한다. 안데르손 감독은 “헬란드르를 제외하고 베리스트롬을 월드컵 최종명단에 포함할 가

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안데르손 감독은 여담으로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휴식을 취하며 선수들과 스태프를 가족이 있는 집으로 보냈다. 나는 집에서 아내를 도우며 정원에서 잔디를 깎는 기계를 이용하다가 오른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검사를 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 아프지는 않다”며 웃었다.

그런데 스웨덴의 부상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1일 훈련에서는 공격수인 구이테티(알라베스)가 발에 부상을 당해 페루전 출전이 불투명하다. 구이테티 대신 켄 세마(외스테르순드)가 역시 임시로 훈련에 포함됐다. 세마는 “대표팀과 함

께한 시간 좋았고 영광이었다. 월드컵에 내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감독이 부르면 늘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며 “월드컵을 앞두고 처음 대표팀 훈련에 함께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선수들이 편안한 분위기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대표팀 분위기를 전했다.

스웨덴 대표팀은 스톡홀름 프렌즈 아레나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당초 알려졌던 15분 대신 25분간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6일에는 스톡홀름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팬들 앞에서 1시간 반 가량 공개 훈련도 펼쳤다. 스웨덴은 7일 비공개로 훈련한 뒤 페루와의 평가전을 위해 예테보리로 이동할 예정이다. 스톡홀름(스웨덴) | 허유미 통신원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판매권 (주) 서울약품 | 제조권 (주) 대한뉴팜 (주) www.dhnp.co.kr

우리 가족 소화·정장·변비·영양에는

원기소 플러스

일반의약품

WONKISSO PLUS Tab. 정

원기소플러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입니다.

- ✓ 효모, 효소, 유산균, 복합체제
- ✓ 베타글루칸 (면역력 강화)
- ✓ 맥주효모 (탈모예방)
- ✓ 각종 아미노산 함유
- ✓ 다량의 미네랄 함유
-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가능

| 효능·효과 | 소화불량, 정장, 변비, 과식, 체항,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소화촉진, 식욕부진, 식욕감퇴,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용 방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인터넷 창에 원기소플러스 원기소 를 검색하세요.

[광고모델] 서울약품 박무식 사장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38 | 소비자 상담 : 02-533-2992 H.P 010-7737-5662